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5월 23일 (제1098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행로법칙

70을 넘게 살다 보니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의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행로법칙'이라 명했다. 행로(行路)란 말 그대로 길, 곧 인생길을 가는 것을 말한다.

산전수전을 겪으며 70년이 넘게 인생길을 걷다 보니 짧아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더라. 육신의 눈과 귀는 둔해지지만, 감각은 살아나서일까.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저 산 너머를 가든, 저 강 너머를 가든 세상 어디에나 이치와 순리와 법칙이 있더라는 것이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굳이 꼽자면, 선은 더딜 수는 있지만 항상 악을 이긴다는 것이고, 거짓은 순간의 승리자이지만 진리는 영원한 승자라는 것이며,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것이고,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공경한다는 것이며...

행로법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요, 순리요, 법칙이더라. 이치대로, 순리대로, 법칙대로 살면 삶이 평탄하나 이를 무시하고 역행하면 삶이 순탄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이란 단서를 다신 후에 어마어마한 복을 말씀하셨고, 반대로 14절 이후에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시고 저주에 저주를 말씀하신 것 아니겠는가.

오래 살아보니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더라. 시행착오를 줄하게 겪으면서 터득한 것은 이치대로, 순리대로 살아야 삶이 물흐르듯 하더라.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복 있는 길이더라.

굳이 좋은 길이 있는데, 편안하고 복 받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탈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도전정신도, 모험정신도 아닌 미련한 짓일 뿐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일찍이 행로법칙을 깨달아 평안하고 평탄한 인생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법칙을 벗어나 예고된 고난과 고생 속에 들어갈 것인가?

나라면 전자(前者)를 택하겠다.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

수요일예배와 주일에배 연속으로 목사님은 '대접(待接)'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분입니다. 감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대, 이 역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준 것인데, 금세와 내세에 복을 받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대 인간의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

석 목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영접한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은 창대한 복을 내리십니다.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진심으로 대접하여 아들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 역시 천사를 하나님처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장인의 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 유황불 속에 멸망했고, 아내는 사위를 생각에 뒤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 들인다, 그분을 접하며 그분과 사귀길 원하고 그분과 친구 되길 원하며 내가 최선을 다해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가정에 오십니다. 그 사업에 임하십니다. 그 교회와 나라에 임하십니다. 주의 종을 대접할 때, 영접할 때, 천사를 대접할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대접하고 영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접하고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철레에 갔을 때, 수닐다 여사는 우리 일행을 왕처럼 대접했습니다. 그 가정 이 대대로 주의 종들을 최고로 대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슬라바 목사의 동생 니콜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다니며 우리 일행을 최고로 대접하는 믿음의



2001 칠레 란카구아 집회

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동해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문벌이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애굽에서, 저주와 가난과 죽을병에서 건져내십니다. 망한 자가 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거울처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롯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루디아가 어떻게 바울을 영접했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했고, 여러분들이 나 이초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영접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의 한자를 보세요. 기다릴, 접대할 대(待)입니다. 접할, 사귀어 접(接)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야겠지, 사귀어야겠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한다, 신부단장하고 있다,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충만한 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영접은 어떻게습니까? 환영할 영(迎)입니다. 환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환영한다, 성령을 환영한다, 내가 성령을 모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간증은 동일하게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영접하고 대접하여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는, 대접할 때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야만 최고, 최대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깨닫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창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7:12)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은 인간미다

인간미(人間味)란 말 그대로 인간의 맛을 말합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먹듯 사람도 맛이 있어야 가까이 하게 됩니다. 따뜻한 정, 사랑, 용서가 있을 때 사람 맛이 나는 법이지요. 그런데 요즘 인간미는 사라지고 냉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고,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지요. 하긴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세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니까요(딤후3:1~5).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마저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지요 선지자니라”(마7:12)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으로, ‘율법’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며,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언급된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어느 한 율법사가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7~40)고 하셨습니다. 곧 ‘율법과 선지자’라는 뜻은 구약과 신약으로, 즉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대접하게 되어 있거든요.

왕 대접을 받고 싶은가 상대를 왕처럼 대접하라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상대적인지라 어떻게 대접받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접을 한다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면 ‘야호 야호 야호’ 하고 같은 말이 반복되어 돌아오듯, 내가 상대를 잘 대접하면 대접이 흔들어 놀려 넘치게 온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눅6:38). 오죽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8:17),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10:32~33)고 하셨을까요?

대부분이 대접하라고 하면 남을 대접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내 자신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모든 기점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남을 대접하지요. 내가 건강해야 남을 대접하고, 내가 알아야 남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타주의를 위한 이기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고 하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행 1:8)고 ‘예루살렘’을 먼저 언급하신 기점이 ‘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요? 내 영·혼·육을 잘 먹고 잘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을 먹고, 문화적인 지식으로 혼을 만족케 하며, 몸에 이로운 음식과 운동과 환경으로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인색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젊은이들에게 “지금은 저축할 때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 투자할 시기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전에 어느 여자 권사님이 병이 깊어 찾아왔길래 기도원에 가서 폭 쉬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제가 기도원에 가면 애들이랑 남편 밥은 누가 해줘요?” 하면서 기도원 가기를 마다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제 현명한 처신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가족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사회도, 국가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가족이요, 내 구역식구요, 내 성도요, 내 이웃이요, 내 직장동료요, 친구입니다. 솔직히 그들은 너무 가까워서 소홀하기 쉬운 상대지요.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그들이 나의 나팔수요, 광고매체임을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 나를 모르면 사람이 나를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라든지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못 써.”라든지 하는 평가가 내 가까운 사람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대접해야 할까요?

저는 ‘가마꾼’이란 사람은 가마꾼을 대접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자기 수족처럼 일하는 사람을 대접하면 무시한다면 가마꾼이 가마를 엮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나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갑질을 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의 어느 장로는 하청업체에 원가를 무조건 깎고 체불하는 등 갖은 행패를 부리더니 결국 그들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인천교회의 한 장로는 하청업체 사장들이 와서 밥을 산다고 오면 ‘여러분들 덕에 내가 돈을 번다.’며 자기가 꼭 밥값을 낸다고 합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장로의 기업이 잘 될 수밖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개척할 때 교회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코도 닦아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자주하다 보니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 엄마 아빠에게 “저 교회 목사님이 과자도 사주고 코도 닦아주고 손을 씻겨줬어.”라고 말했고, 그 엄마 아빠들이 감사하며 교회에 나오게 되어 교회가 성장하

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또 가까운 이웃 부동산에 있는 노인들을 잘 섬기니 사람들이 집을 사면 그분들이 “저 교회 나가봐라. 목사님이 아주 좋아.”라고 광고해줬다고 합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찌니라”(잠27:2).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다

그런데 목사들이 자기 성도들에게 반말이나 하고 명령이나 한다면 그 목사를 누가 섬기겠습니까? 직장동료를 무시한다면 누가 가까이 지내려고 하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싫어합니까?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닙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도 발로 차면 막 짖어대고 물려고 합니다. 우리 집 들어서면 골목에 큰 개가 하도 짖길래 ‘이놈!’ 하고 눈을 부릅뜨고 야단을 치니까 더 짖어댁니다. 내 발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가 떠나가라 짖어댁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하다가 집에서 고깃덩어리를 가져다 몇 번 던져줬더니 글썽 나중에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대지 뵈니까. 내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짖어대던 놈이 이제는 내 발소리에 벌써 마중을 나와 반깁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행위로 세상을 밝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소홀하게 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행위를 보고 “저 옆집 아저씨는 역시 달라.”, “예수중심교회 성도는 뭐가 달라도 달라.”, “우리 삼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김 과장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 이래야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 ‘교회 가볼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4~16).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 대접하고, 먼저 힘든 일을 하고... 그러면 당신도 이해받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대접받을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13:1~2).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아버이의 마음

일제 강점기에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공부를 위해 천신만고 끝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피아노 연주와 작곡을 위해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공부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께 음악공부를 그만 두어야 할 상황임을 편지로 알렸습니다. 원래 가진 것이 없었지만 독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는 아들에게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계속하라고 응신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빛을 내 피아노 구입 자금을 보내주었고,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부터 원거리 산까지 모조리 뒤져 솔방울을 긁어모아 불쏘시개용으로 팔면서 갖가지 하드웨어를 닦치는 대로 해서 혼자 몸으로 아들의 유학 뒷바라지에 쫓여만 가는 빛을 갚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유학을 마친 청년 이흥렬이 음악가가 되어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우리가 아버지날에 부르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버이의 희생은 가이 없고, 정성은 지극하고,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십계명 중 사람에게 대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에베소서를 통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가치를 두어 공

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첫 계명은 모든 가치의 최우선 순위를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말과 생각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창2:7)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에덴동산을 주셨고 만물을 지배하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라는 죄악과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바로 우리 곁에, 그리고 영원히 있습니다. 십계명 중 첫 계명은 “하나님만을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실천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3~12). 할렐루야!

이관섭 장로
kslee@krii.re.kr

:: To Be Succeeded ::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어느 날 아이들 하교 후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외출하려던 찰나, 예수님이 집 안에서 웃고 계시는 게 확 다가왔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들과 조촐하게 모여 예배하는 그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 같다. 인류 최초로 믿음으로 드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의 예배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전심으로 드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모든 착고개가 풀려졌던 바울과 실라의 예배, 그리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자녀 삼으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의 예배만 보더라도 진실로 드러지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이후 누군가의 가정용 교회 삼아 삼삼오오 드리던 예배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당으로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후에도 우리 믿음의 선전들의 새벽예배를 비롯한 수많은 예배와 간절한 기도로 흑암 가운데 있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임하여 지금까지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예배를 통해 성령님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탄식하심 따라 회개하고 간구케 하신다. 지쳤던 영혼을 새 힘과 성령으로 충만케 할 뿐 아니라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언행심사와 삶 전반을 교훈하고 지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가신다.

개인과 가정, 교회, 국가 할 것 없이 예배는 인생과 영생의 터닝포인트이며, 축복의 마중물이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3~24).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다



5월 15일, 하루 종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1시, 총회장 목사님께서 예고 없이 노랑진 교육관을 방문하셨다. 목사님은 이 날 1시 반부터 진행된 중고등부 예배와 5시에 시작된 대학부 예배, 그리고 7시 문래동에 있는 청년부 예배까지 다 참석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마침 이날은 스승의 날이었다. 목사님은 “스승의 날이라고 많은 제자들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니 기분이 좋았고,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스승의 날을 맞아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너희들 예배에 참석해서 격려해주고 지도해주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여기에 왔다.”라고 하셨다.

목사님은 세 부서 예배에서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같은 주제 속 다른 비유를 통해 그들의 나이와 형편에 맞게 설명해주셨다.

“자연도, 사람도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 거란다. 상대를 잘 대접하면 나도 잘 대접받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나팔수가 되어주기 때문이지. 너희도 살다 보면 처세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터인데, 처세술 중의 으뜸이 바로 나와 가까운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나를 잘 대접해야 한다. 너희들은 지금 한창 배울 시기요, 성장하는 시기이니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나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길 바란다. 그것이 네 영·혼·육을 발전시키고 강건케 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열정과 패기가 있어야 해. 물이 100도가 되어야 주전자 뚜껑이 열리듯, 용광로에 들어가면 쇠붙이도 녹듯 너희의 열정과 도전 앞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막힌 것이 열리도록 말이다.”

목사님은 짧지만 삶에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으로 젊은이들을 가르치셨다. 갑작스런 목사님의 방문에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다.

“목사님, 사랑해요!” 모두의 외침이었다.

신묘수 전도사

:: 내가 매일 기쁘게 ::

나의 그릇과 너의 그릇

고등학교 2학년 문학 시간에 배우는 고전 중에 <규중칠우쟁론기(閔中七友爭論記)>라는 작품이 있다. 바느질에 쓰이는 도구들인 바늘, 자, 가위, 인두, 다리미, 실, 골무 등의 의인화를 통해 인간사회를 풍자한 이야기이다. 서로 자기가 없으면 바느질을 할 수 없음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주인인 규중 부인을 힐뜽기도 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듣기에 좋고 부드러운 말들을 주고받으니 얼굴 붉힐 일이란 거의 없다.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져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면 처음 나누었던 좋은 말들은 어느새 줄어들고, 규중의 일곱 친구처럼 ‘내가 너보다는 잘났지’라는 생각과 상대방의 험담이 너무나 쉽게 쏟아져 나오곤 한다.

왜 사람들은 서로의 단점만을 보려고 할까? 끝도 없이 남의 흠만 늘어놓는 내 자신을 돌아보다 문득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릇이 제각각 모양대로 그 쓰임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제각각 다르다는 말씀. 어쩌면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그릇에 담으려고 애

를 썼는지도 모르겠다. 네모난 접시에 동그란 파전을 담는 것처럼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내 그릇에 담으려니 끝없는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 내 안에 그들을 담으려고 하지 말자. 차라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낫겠다. 내가 주님의 소중한 자녀이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설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묻은 수많은 피로 성전 건설을 거절하셨다.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대상 22:1~19). 다윗에게는 다윗의 역할이 있었고,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왜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역할을 다하고, 타인들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순종적인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만의 그릇대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전훈지

:: 일본에서 온 편지 ::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 줄 타는 곡예사가 넓은 폭포를 가로질러 밧줄을 묶고서 멀리 반대편을 향해 줄을 타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줄타기 실력자다. 그곳에서 밧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박수를 치며 “역시 당신은 세계 제일의 외줄타기 선수야.”라고 합성을 질렀다.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 박수 치는 관중을 보고, “여러분, 이번에는 내가 내 어깨에 한 사람을 태우고 줄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당신 실력이면 갔다 오고도 남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곡예사는 “내 실력을 인정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한사람 내 등에 타십시오!”라고 말했다. 조금 전까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볼 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나오더니 등에 올라탔다. 사람들은 “너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고 물었다. 그러자 소년이 “이분이 우리 아빠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위기와 고난,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곤 한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살만한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단 1%의 희망도 없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진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갔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의 기적을 주셨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말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방에 알리고 선포하는 일을 해냈다. 골리앗은 ‘내가 너를 쳐서 이긴다.’라고 자신의 힘으로 다윗을 이긴다고 말하지만(삼상17:44),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

닌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이길 것이라고 선포했다(삼상17:45). 일본 사이다마현 도다시에서 지병이 있는 105살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려 입원했지만 무사히 완치 후 퇴원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할머니는 입원해 있는 동안 늘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팔다리 들기 운동을 하시고 병원에서 나오는 밥도 가리지 않고 다 드시며 “나는 반드시 나아서 집에 간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꼭 말씀하셨다고 한다. 참 신앙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이다. 과거에 건강했던 것보다는 지금 건강해야 한다. 지금 건강해야 미래도 건강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지 과거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지금’이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Good News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무지개의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일곱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자외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만드실 때 너무 큰소리나 세미한 소리는 듣지 못하게 하시고 적당한 크기의 소리만 들을 수 있

게 만드셨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나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생활 자체가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신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천하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

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백신 접종 후 희귀혈전증 위험도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5월 9일 현재 367만 명 이상으로 전 국민의 7.2%다. 당국에 신고된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경증들이 있고, 중증이상반응으로는 경련, 혈전, 횡단성 척수염에 의한 사지마비 등이 있다고 한다. 이 중 ‘혈전 발생’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순환기 내과 나상훈 교수는 지난 4월 20일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혈전 논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나온 자료를 잘못 인용하면서 벌어진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밝혔다. 나 교수는 우선 명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된 혈전증은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특이부위 혈전증’으로 발생 빈도도 매우 드물다. 하지만 가장 광범위한 의미인 ‘혈전’이 주로 사용되면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부작용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 3월 1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반적인 혈전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혈전 중에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을 일으키는 동맥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초기부터 제외했다. EMA는 국내에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뇌정맥동혈전증 등 특이부위 정맥혈전증의 경우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아직 확정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EMA는 지난 4월 7일 보고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특이부위 혈전증(희귀혈전증)’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희귀 혈전증과 연관성이 분석된 사례는 아테노바이러스 전달체로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안센, 스푸트니크V 백신 외에도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에도 보고됐다. 그 빈도는 매우 낮아 19일 기준 유럽에서 AZ 백신 접종 100만 건 당 3.5~6.5건 발생이 보고됐고, 화이자 백신의 경우 유럽에서 100만 건 당 0.6건, 모더나 백신은 100만 건 당 1.25건이 보고됐다. 모든 코로나 백신은 저마다 드문 중증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빈도는 낮은 편이므로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와 이득을 본다면 접종을 지속하면서 중증 부작용에 대비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것이다.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 신앙에세이 ::

갈등 해소법

요즘 사는 게 참 힘들죠?

그때 그 시절 소중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곁에 없고, 살다 보니 연락처는 많아졌는데, 막상 지금 전화 걸만한 사람이 없진 않나요? 신앙생활을 잘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맘껏 물어보고 싶은데 막상 눈물도, 용기도 나질 않고, 홀로 외로움을 모두 감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계시고, 계셔야만 하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 걸까, 듣고 계시는 걸까, 혹은 괜히 기도하고 기대했다 실망하며 낙심할까 오히려 기도를 멀리하고 있을까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멈춰서있지는 않나요? 스스로 삶을 마감하면 가는 곳이 지옥이란 것은 알기에 그저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보기는 좋지만 부러움에 마음속 한구석이 시린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누구나 외로워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다 같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은 척하거나,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잠시 망각할 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힘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찾아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품에 꼭 안아주세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당신이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지금까지 기다렸듯,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얘기를 듣고자 지금까지 기다리셨거든요. 한번 눈을 감고,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언 8:17).

박찬영

post.naver.com/imsofriendly

